‘지혜의 샘’ 현대불교를 이웃에게

인 터 뷰 **법보시 신문발송 자원봉사자 변복희 · 김영자 보살**

“군법당 포교현장에 가보면요, 아직 맨 바닥에 자리 깔고 포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대불교가 그렇게 포교하는 현장에서 더 빛을 발하도록 도와야지요.”

전법현장에서의 ‘현대불교신문 효용론’을 이야기하는 변복희(50) · 김영자(64) 보살. 몇 해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신문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법보시 신문 발송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매달 빠짐없이 참석하

“ 포교현장서 더 빛나요 ”

다보니 봉투 끝에 풀을 붙이고 여미는 손길이 이제 전문가 수준이다. 그런데도 변보살과 김보살은 “한 것이 없어 부끄럽다”며 카메라를 향해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보살들이 ‘군법당’ 말이 나오자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다.

“열악한 프로그램과 재정 수준으로 군법당에서 포교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 불교계가 좀 더 많이 개발하고 노력해야죠.”

매달 한 번씩 현대불교 법보시 신문 발송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변복희(사진 왼쪽) · 김영자 보살. 두 보살은 현대불교가 포교현장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불교는 변보살에게 마음에 드는 신문이다.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충실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거기에 김보살도 한마디 거든다.

“군부대나 교도소 등에 계신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만한 신행적인 내용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 없다고 하구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현대불교 법보시는 물론 알리기에도 앞장서겠다는 두 보살은 “법보시 하는 신문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었어면 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법보시 후원도 늘었으면 한다”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2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212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5만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통해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1구좌 이상 전화로 신청

■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2(직통), (02)2004-8200(대표), 팩스(02)737-0697

● 매주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2005년 5월 25일 현재

구분	발송처	보시	부수
경찰	경찰병원	2	6
	경찰청 · 경찰서	185	189
교화기관	감별소	5	15
	교도소	36	198
	교정청	2	6
	구치소	9	43
	감호소	3	18
	소년원	12	36
군부대	국군병원	16	18
	군법당	354	405
복지단체	기업 · 복지관 · 재단 등	160	184
기타	대학교	36	36
	일반병원	3	45
기타	기타	11	13
합계		834	1212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대덕행 강덕순 강도분 강명옥 강명자 강순희 강영내 강영신 강인자 강점숙 강춘계 강황진 경연혜 계미영 고경옥 고동환 고은영 고재흥 고준영 고필선 공덕화 공정심 공평근 곽동희 곽명순 곽성순 곽우진 곽은아 곽중경 곽춘자 광명선원신도회 구길자 구명보 구수연 구필회 국인호 권경숙 권구현 권대성 권두상 권명아 권미경 권순남 권오응 권윤진 권진희 김갑순 김강산 김강웅 김건용 김경수 김경애 김경옥 김경재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규순 김규정 김금옥 김금천 김기성 김기춘 김기홍 김나령 김남규 김다래 김덕임 김동자 김동찬 김명란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자 김미래 김미연 김미진 김병일 김병희 김복영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 김상호 김석자 김선남 김선아 김선영 김선행 김선화 김성순 김수옥 김수정 김수현 김숙자 김순금 김순련 김순복 김순분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애숙 김애자 김여경 김연수 김연수 김염순 김영삼 김영선 김영수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출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옥정 김용숙 김용순 김용재 김용호 김우전 김원수 김원용 김월순 김윤관 김윤자 김은식 김의식 김인태 김재갑 김재방 김정규 김정덕 김정렬 김정숙 김정애 김정옥 김정원 김정환 김정희 김주현 김준형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진근 김진선 김진영 김춘희 김태곤 김태수 김태순 김태영 김태형 김택곤 김학근 김학수 김향숙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태 김혜옥 김홍조 김화남 김화일 김효래 김효례 김효상 김희숙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숙희 나순옥 남광 남국석 남선자 남여원 남유선 남종진 남주희 남현우 노성일 노성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윤택 단영숙 덕장스님 도미라 도태순 류동연 류송우 류정오 류지형 류해창 마정혜 마진호 맥현기 맹남균 문경숙 문두상 문상철 문숙희 문순조 문영희 문의성 문재근 문정희 민경애 민성곤 민정원 민진옥 박경국 박경수 박경옥 박경자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기숙 박기순 박남순 박노운 박동호 박말이야 박명란 박명자 박명희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기 박봉순 박상기 박상돈 박상섭 박선애 박성례 박성수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신영 박양주 박연숙 박연신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무 박용배 박용옥 박용진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장미 박재석 박재윤 박정노 박정상 박정숙 박정순 박정옥 박정자 박정희 박종수 박종임 박주찬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징자 박찬 박천혜 박철홍 박청길 박춘미 박춘봉 박태 박태균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순 박현주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박희순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장수 배민화 배춘자 배태열 배현옥 백규현 백영묵 백종희 백혜원 변영희 변용태 봉창욱 봉철웅 봉현주 상현스님 서경자 서덕교 서미옥 서병학 서송자 서승수 서영주 서영혜 서예숙 서울월곡청소년 서원석 서윤이 서의숙 서재영 서정우 서청자 서춘건 서희숙 석영수 선덕스님 선현자 성경순 성동제 성재영 손대상 손문철 손순옥 손영선 손영실 송길순 송동호 송현희 송용관 송은경 송인옥 송재업 송재윤 송정구 송종화 송필재 송희경 신남선 신동호 신상균 신수영 신영찬 신용례 신윤기 신재철 신정규 신조현 신주호 신진임 신진희 신창순 신현순 신혜경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숙희 심영애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국선원 안병윤 안은희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양익수 양재호 양준원 양태환 양흥용 엄흥수 여상배 연규혜 염흥수 오경환 오광자 오미덕 오병덕 오병희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영남 오원중 오정애 오지은 오창규 오창희 오학규 오현규 오현자 오현희 오형만 옥영식 우동렬 우병선 우암스님 우지예 우춘자 원판영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보향 유영미 유영신 유종욱 유지호 유진옥 육성희 윤기석 윤기암 윤기원 윤기홍 윤대수 윤병덕 윤병창 윤본숙 윤상현 윤석완 윤선영 윤여형 윤영숙 윤오인 윤웅상 윤정연 윤정일 윤제학 윤종기 윤종숙 윤지웅 윤지은 윤지응 윤채남 윤춘매 윤춘희 윤현선 윤현숙 윤희원 윤병창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건우 이건주 이경남 이경숙 이경애 이경영 이경원 이경자 이경주 이경춘 이광수 이광현 이광훈 이구자 이군자 이귀순 이규달 이규만 이근기 이근혜 이기오 이길순 이단식 이대섭 이대성 이동주 이동진 이두영 이름 이명규 이명숙 이명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라 이병태 이보편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옥 이상은 이상태 이서호 이석순 이성용 이수양 이숙경 이숙희 이순덕 이순복 이순자 이순화 이순희 이승윤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경 이영민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이영진 이영환 이영희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재 이용진 이우순 이우진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원애 이유순 이은구 이은숙 이은희 이익수 이재숙 이정순 이정안 이정옥 이정임 이정조 이정헌 이정희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옥 이준섭 이준재 이중기 이지영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진순 이찬수 이창호 이청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인 이태희 이필회 이한희 이향우 이해 이해송 이향림 이형신 이형호 이혜숙 이화자 이훈노 이희숙 이희영 익명 일진성 임경희 임광기 임금지 임명옥 임선희 임영애 임옥빈 임용식 임용호 임정숙 임종구 임종미 임춘희 임형준 장기홍 장기환 장만태 장명호 장문규 장미숙 장성윤 장영남 장재원 장정 장정자 장정희 장해기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병수 전수남 전유신 전은희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근희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미련 정상만 정설매 정성남 정성종 정수자 정연경 정영수 정영신 정영희 정옥녀 정운경 정윤채 정응균 정인순 정인자 정자화 정차효 정창남 정창래 정필순 정하석 정호영 정회철 정효남 조경숙 조계희 조공옥 조권식 조근영 조명래 조명숙 조미란 조민규 조봉호 조영석 조영완 조옥순 조원희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진한 조창희 조춘교 조현수 조혜숙 주경숙 주미숙 주정숙 주정옥 주정희 주희숙 지명구 지명숙 지혜선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차동호 차민영 차상환 채동석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 청무스님 청암사 최경락 최경진 최병조 최복림 최복섬 최복순 최상철 최순옥 최영봉 최영숙 최옥자 최원주 최윤희 최은희 최인자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준성 최준영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행규 최현수 최형선 최희숙 탁순례 태순덕 하근수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희 하태선 한경자 한기영 한기준 한동원 한세진 한숙희 한애삼 한영덕 한윤경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철화 한화윤 허경순 허미옥 허복영 허성국 허재승 허태영 허태환 현남순 현미숙 현석선 혜숙스님 호소희 홍경욱 홍경화 홍순 홍순아 홍영순 홍월자 홍학란 홍현하 황경숙 황경욱 황금영 황논철 황문현 황순수 황순심 황용숙 황의식 황인순 황인형 황태숙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공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본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신도회

(2005년 5월25일 현재 · 가나다 순)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찰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장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 올 칼라 / 신국판

부처님을 친견하는 사불(寫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는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권】 249쪽/50,000원 【2권】 269쪽/55,000원 【3권】87쪽/20,000원 【4권】55쪽/15,000원

● 사불 교본 1,2,3,4 (책크기 : 4절 395 × 545mm)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천수천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불할 수 있다.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초파일 연등에 붙이거나 법당이나 가정에서 실에 꿰어 부처님을 장엄할 수 있다.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재일에는 지장보살을, 관음재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재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장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억불정책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님들이 천백억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나이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